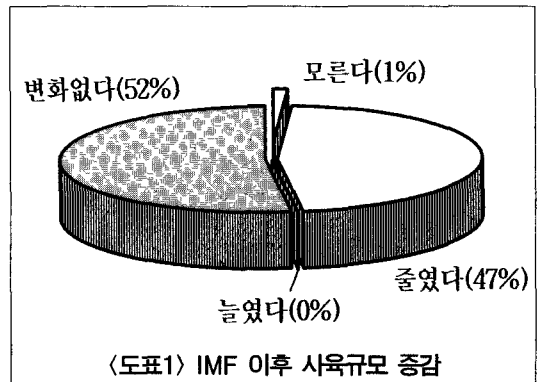


본 설문조사는 IMF 체제 이후 경기위축으로 인한 소비감소와 원자재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대부분의 육계농가들이 업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어 경제위기가 육계업에 미친 영향과 향후 육계인들이 육계업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코자 실시한 것이다.

설문조사 방법은 제11회 전국육계인대회에 참석한 전국의 육계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중 설문에 응답한 88명의 설문내용 결과를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신뢰도면에 있어 유의하다고 보고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 편집자주 -

1 IMF 체제 이후 사육규모 증감을 묻는 질문에는 (1)줄였다(47%), (2)변화없다(52%), (3)늘었다(0%), (4)모른다(1%)로 응답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전국의 모든 농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육규모를 늘린 농가가 한 농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응답자중 절반에 가까운 47%의 농가들이 사육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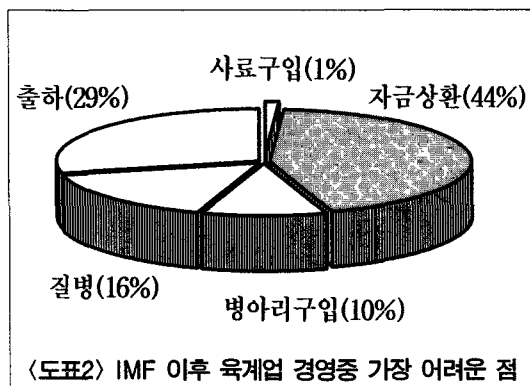


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육계사육규모가 육계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 1997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오던 것이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불기 시작한 경제위기가 국내에 상륙하면서 육계업계에도 소비감소, 생산비 증가 등 악조건이 작용하면서 사육규모의 축소가 불가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모의 변화가 없었다는 농가도 절반 이상인 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현상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근 육계값이 살아나고 사료비가 낮아지면서 그 동안 어렵게

끌어온 육계업을 다시 정상화시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앞으로의 경기가 아직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경우 사육규모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위기 이후 육계업 경영 중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1)자금상환(44%), (2) 병아리 구입(10%), (3)사료구입(1%), (4)질병(16%), (5)출하(29%)로 응답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육계인들이 육계를 경영하면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역시 자금상환으로 무려 44%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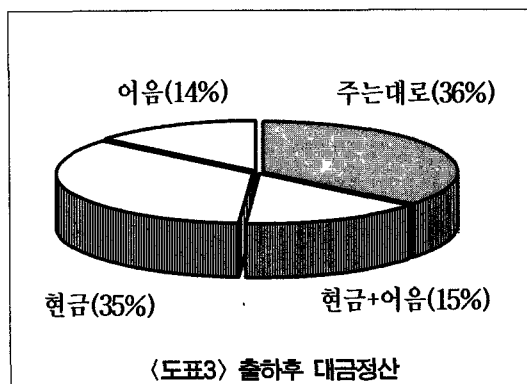
이는 경제위기 이전에 자동화 및 계사신축 등을 목적으로 빌린 리스자금 또는 정부 지원자금 등이 아직도 상당부분 있어 적자경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준 것은 출하(29%) 문제로 소비감소에 인한 판매망이 축소되면서 출하하는데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높게 대답한 것은 질병문제로 뚜렷이 육계업에 피해를 준 질병은 없으나 전염성기관지염(IB), 감보로(IBD) 등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농가를 괴롭혀온 것을 알 수 있

다. 반면 병아리 가격이 520원의 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병아리 구입하는데는 겨우 10%의 농가들만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특히 지난해 초 사료수급불균형과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육계인들을 안타깝게 했던 사료구입 문제는 사료원료의 지속적인 공급과 사료가격 인하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출하후 대금정산에 대한 질문에는 (1)현금(35%), (2)어음(14%), (3)현금+어음(15%), 주는 대로(36%)로 답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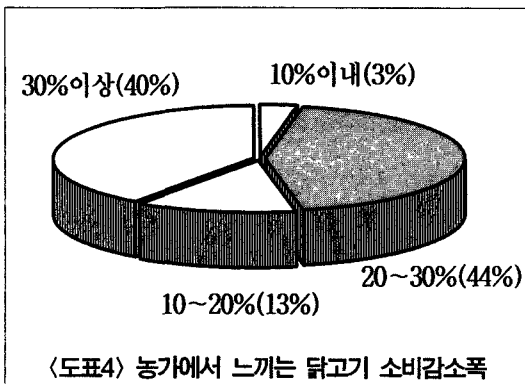
육계업에서 대금결제 문제는 계열화 사업 확대 및 육계유통업자들의 난립으로 결제일이 늦어지는 등 육계농가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위기 이후 지난해 초 사료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어음 결제가 현금결제로 전환되면서 유통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었으나 다시 사료수급의 안정과 사료회사들의 거래처 확보를 위해 외상거래가 확대되면서 예전의 관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설문에서 현금거래가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육수수를 줄이면서 내실을 기해 경영해 가는 농가들이 다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실제로 현금결제가 판매직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소 20일 후에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농가들은 어음, 현금+어음, 주는 대로 받는다고 대답해 출하 후 대금정산에 있어서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중 주는 대로 받는다는 농가는 무려 36%를 차지하고 있어 결제의 주도권을 유통상인들에게 넘겨 무계획적인 경영으로 자칫 육계농가들의 부실이 커질 우려를 안고 있다.

4. 농가에서 느끼는 닭고기 소비 감소 폭에 대한 질문에는 (1)10% 이내(3%), (2)10~20%(13%), (3)20~30%(44%), (4)30% 이상(40%)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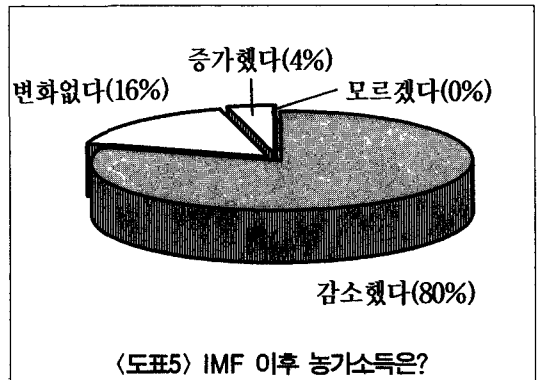


이 질문은 경제위기가 육계인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닭고기 소비가 줄어든 만큼 농가소득도

감소했다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다.

육계농가들의 절반에 가까운 44%의 농가들이 닭고기 소비가 20~30%정도 감소했다고 답변하였으며 40%의 농가는 30% 이상 닭고기 소비가 감소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실제 육계사료가 설문당시까지 경제위기 이전 보다 약 11%가 줄어든 것과 비교해 볼 때 육계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닭고기 소비는 이보다 컸으며 한해동안 생산량은 감소했으나 그보다 소비감소가 더 큰 폭으로 벌어져 육계인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온 것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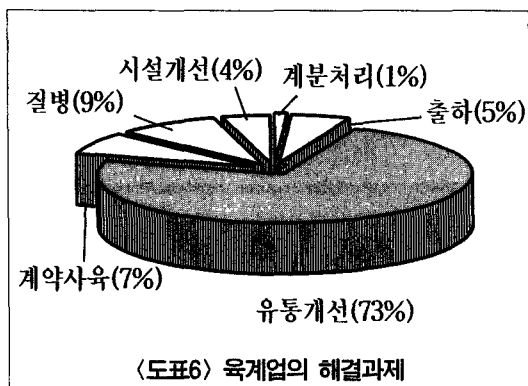
5. IMF이후 농가소득은?에 대한 질문에는 (1)감소했다(80%), (2)변화없다(16%), (3)증가했다(4%), (4)모르겠다(0%)로 응답하였다.



본 질문은 4번항과 연관해 경제위기가 육계농가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가져왔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볼 수 있는 항목이라 볼 수 있다. 예상보다 많은 81%의 농가들이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대답하였으며 증가했다는 농가는 겨우 4% 수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20%에 해당되는 농가들은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거나 소득이 증가했다고 답변

했는데 이들은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거나 비교적 사육규모가 적은 농가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지난 3월과 7월에 육계시세가 높았을 때 출하시기를 맞춘 농가일 수도 있을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요행을 바라며 양계업을 경영해서는 소득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항목이기도 하다.

6. 육계업계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에 대한 질문에는 (1)계약사육(7%), (2)계분처리(1%), (3)출하(5%), (4)유통개선(73%), (5)질병(9%), 시설개선(4%)으로 조사되었다.



이 질문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중 유통개선(73%)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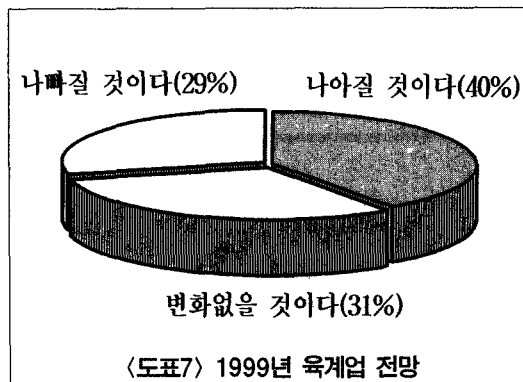
이는 IMF 이후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경제가 악화되다 보니 우선 자금 회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불만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간 유통상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중간폭리를 취한 후 고의로 부도를 내고 달아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가격이 상승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

데 가격이 꾸준히 유지되거나 하락할 경우 2-3중 시세가 형성되어 실제로 농가가 받는 가격은 현 고시가에서 100~200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 불만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답변에서는 질병(9%), 계약사육(7%), 출하(5%), 시설개선(4%), 계분처리(1%) 순으로 유통개선보다는 10% 미만의 적은 비율로 의견을 주었는데 계약사육의 경우 사육수수료 등 당면문제 이외에는 과거보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1999년의 육계업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1)나아질 것이다(40%), (2)변화없을 것이다(31%), (3)나빠질 것이다(29%)로 답변하였다.



1999년도 이후 육계업은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나빠질 것이라는 29%의 답변보다 높게 나타나 앞으로의 육계산업이 희망적일 것으로 보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계업계가 경제위기 이후 30% 이상 수수를 감소시킨 데다 현재의 경제사정이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육계가격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닭고기 수입, 소비감소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호전되더라도 1998년과 같은 수준이 계속될 것이라고 응답한 농가들도 31%를 차지하였는데 올해 어려움이 계속된 관계로 앞으로 변화가 없거나 나빠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올 한해도 내실을 기하지 않고 육계업을 경영할 경우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채란인대회때 채란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내용과 본 설문과 유사한 항목을 비교해 보면 육계업의 어려움을 쉽게 알 수 있는데 IMF 이후 사육규모 증감에 대한 질문과 비교해 볼 때 채란인들은 사육규모를 줄였다고 대답한 농가가 36%인 반면 육계인들은 47%로 나타났고, 늘었다는 농가도 채란인들은 7%에 해당한 반면 육계인들은 전혀 사육규모를 늘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표면적으로 볼

때 육계인들이 어려움을 더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향후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좋아질 것이라는 대답이 채란인들은 57%를 나타낸 반면 육계인들은 40%로 나타나 역시 육계업이 채란업 보다 어려움이 더 따를 것으로 보았다.

본 설문을 종합해보면 경제위기 이후 소비감소와 자금압박 등으로 사육수수가 10% 이상 감소되고 농가소득이 현저히 줄어들어 육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통구조 개선을 가장 큰 현안문제로 지적하고 있어 경제위기 이후 유통의 혼란으로 육계업을 더욱 어렵게 한 것으로 보여 결제문제 등과 관련된 유통구조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양계**

21세기 첨단단열재

골드폼

독일형 상압식 압출보드 단열재

단열재 선택


- 변함 없는 단열재
- 자기소화성 단열재
- 세계가 인정한 단열재
- 축사에 적합한 단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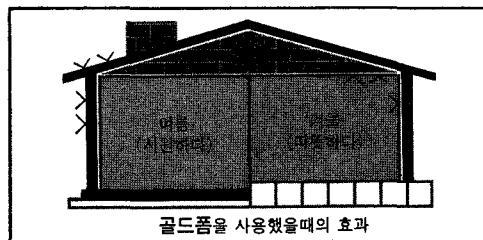
쾌적한 축사를 원하십니까?

※ 축산농가에서 인기높은 이유!

1. 우수한 단열로 겨울철 사료비 절감.
2. 우수한 단열로 냉난방의 에너지 절감.
3. 축산농가의 생산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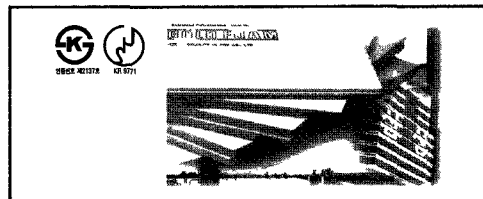
자매품 : 스티로폼, 갈바룸, 샌드위치 판넬

기획영입팀
 **서울이피에스산업**



골드폼을 사용했을때의 효과

골드폼이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 : (0331)225-4980(代)
 팩스 : (0331)238-0423
 휴대폰 : 017-360-8899(直)